

지 상 범 석

청정한 본래마음 회복

'성불하고야 말겠다' 결연한 목표없으면 예불·공양해도 진정한 불심아닙니다

든 것을 다 내 것으로 하자는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다면 어려서어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끝없는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탐·진·치 이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심은 마음병의 전체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병을 치유하는 약도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마음병약은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 사천 법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이것을 전부 수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찾아 올라가면 탐·진·치 삼독에 귀결되고 또 집착하면 탐을 하나에 귀결됩니다. 남의 것까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마음은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회복하고자 함이 불교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병의 원인을 모르고 본래 마음을 찾지는 의지가 없고 성불해 보겠다는 이상이 없다면 아무리 법당 부처님상 앞에 예배 공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진정한 불심이 못되는 것입니다. 불심이란 미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한 부처님의 진리를 얻어 함께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심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금생이 다하면 육신은 늙어 죽지만 잠재의식은 물질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다시 내생의 속명으로 표현됩니다. 그리하여 불

선한 세계에 태어나는 노력과 회향이 있기를 바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삼륜정정(三輪淨正)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곧 시자(施者) 수자(受者) 물질(物質) 세가지의 움직임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스님이 절에 거주하면서 수도와 포교로 민중에 정신적 이익을 주지만 물질생활의 수입을 별도로 장만하는 것은 안됩니다. 스님은 남을 교화하는 반면에 교화를 받는 불교 신도들이 물질을 희사해서 생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희사를 불교에서는 재시(財施)라고 하고, 정신적으로 교화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또 물질

으로래 악업의 인과(因果)를 함께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 때문에 삼륜정정(三輪淨正)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밝힌 삼세인과(三世因果)란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으로써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위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동정으로 얻어 먹은 것은 앞날에 감사하면서 갚게 되지만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옛날에 그 집의 소로 태어나서 일생을 일하고 고기까지 바치는 인과응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얻은 재산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망하게 될 진대 깊이 반성하고 살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남의 것을 공짜로 얻고자 하지 말고 남에게 주는 것을 주더라도 아니 갖아줌을 원망하는 것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불교 생활에서도 정당한 보시와 정당한 받음과 물질자체를 보시하는 자가 믿음에 있어 죄입이 없는 순수한 노력의 물질이어야만 합당하고 서로 복되고 청정을 기약하고 성불함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밝은 인과생활을 해야만 맑은 마음이 생겨



대폭발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년쯤 된다. 태양과 지구의 나이는 각각 약 50억년과 45억년쯤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은 약 35억년 전에 탄생했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 생명 진화의 역사가 시작되며, 유전과 진화라는 것도 대단히 경이로운 과정이지만, 지구가 생겨난 이후 지구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극적인 중요한 사건은 역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일일 것이므로 이는 생명사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사든 식물과 같은 자연사든) 역사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사건을 오늘날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만 원시 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최초의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지구의 진화 과정과 연관하여 생각하여 볼 때, 원시 지구의 대기는 메탄과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환원성 대기라고 추정된다. 오파린은 이러한 원시 지구의 상황 하에서 유기물 합성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관한 실험은 1953년에 밀러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메탄과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의 혼합 기체를 일주일 동안 가열 순환시키면서 전기방전을 시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과 포름알데히드, 시안화 수소 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가열과 전기 방전은 각각 원시 대기의 고열 상태와 공중 방전을 재현시킨 것이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물의 참여없이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기물이 원시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점차 농축되었다.

10억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이들 간단한 유기물들은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였으리라고 추측한다. 즉 원시 대양에 녹아 있는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합성되고 탄수화물은 다당류를 만들어 내며 퓨린이나 피리미딘 유도체들이 핵산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또한 그 개연성이 실험으로 확인된다.

오파린은 원시 바다 속에 녹아 있는 핵산이나 단백질의 고분자 화합물로부터 코아세르베이트라는 원시 생명체의 시초가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포의 막과 비슷한 단

백질의 막을 가져 주변과 경계를 이루며, 세포의 삼투작용과 비슷한 현상도 나타낸다. 폭스도 이와 비슷한 설을 주장한다. 그는 단백질이 없이 DNA는 생성될 수 없으므로 최초의 자기 복제 물질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미노산을 200℃에서 가열하였다가 식혀 단백질과 유사한 폴리노이드를 얻었으며, 이를 비탄물에 녹인 후 가열하였다가 식혀서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 크기의 마이크로스페라라고 불리는 입자를 얻었다. 이것은 막을 가지고 있으며 생장과 증식, 촉매작용 등을 할 수 있는 자적인 자기 복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코아세르베이트나 마이크로스페라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원시 생명체로 발전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한 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실험이 성공하였다고 해서 원시 지구에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기물이 형성되고 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된 후 생명이 탄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무기물로부터 생명의 원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는 맑스가 주장하는 '양'의 질로의 변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을 데우면 온도가 상승하는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온도가 100℃에 이르러 양적인 변화는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나고 다시 그 유기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이러한 질적인 변화에 비유한다고 하겠다. 양의 질로의 변화된 생명의 탄생은 이러한 모든 변화는 사람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오직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 위의 생명도 그 자위를 갖추게 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상한다면, 생명의 역사에도 또한 성주괴공의 진리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무기물서 유기물 생겨나듯
인연 화합에 의해
무자성 생명 탄생”

'모든 것을 내것으로' 끝없는 탐욕이 고통 만들어 자기를 모르고 밖에서 광명 찾으면 잘못된 믿음

깊이 병들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보면 성별 일도 없고 어려서 일을 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 집니다. 지나친 욕심 하나를 단속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부처님 법을 어느 다른 곳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진짜 망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욕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도 참고 성내는 일도 참고 어려서움을 생각지 않는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면 모두가 없어지고 탐진치가 없는 본래 마음으로 확연해지는 경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안정이 안되어있는 망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에 자착하고 괴로움을 달게 받는 정도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되면 이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이 발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 쉬지 아니하고 나가면 성불까지 하게 됩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고, 처음 발심했을 때에 문득 정각을 이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성불의 결과는 있고야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마음은 청정하며 번뇌와 망상의 고통이 없는데 망상과 번뇌를 해소시켜

교인은 남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노력이 아니고는 조금도 대가(代價)를 생각지 아니하는 인과정신이 불교정신입니다. 신(神)의 주재(主宰)나 창조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짓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는 투철한 인과의 정신과 자기창조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몸은 여러번 죽고 태어나고 하지만 마음의 작용인 업식의 실체에서는 전생 것을 금생으로 받고 금생 것이 내생으로 이어져 관계적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이 중생의 생활인 것입니다. 윤회는 그와 같아서 잠재의식 속에 인간이 갖는 도덕과 윤리가 전혀 없어서 마치 짐승과 다를바 없게 되면 살아서도 인간사회에 함께 살 수 없고 죽으면 그러한 잠재의식적인 스스로의 유희에 이끌리어 짐승의 몸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업력입니다.

민류는 견인의 힘이 있듯이 무형적인 잠재의식은 인연성의 업력(業力)에 이끌려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업의 성질에 따라 전개되는 세계가 육도중생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체와 윤회의 근간이 되는 인과의 법칙을 확고히 체득하여 스스로 업심을 정화해 가야 합니다. 비록 윤회에 빠진 중생적 인간이 되었더라도 악도에 윤화하지 말고 생생에 선업과

“시자·수자·시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베품에 있어 집착없이 순수해야 하고 받는 사람도 씩씩이가 불순하면 안됩니다”

에 한해서 주는 것을 시자(施者)라고 하고, 받는 것을 수자(受者)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는 시물(施物)이라고 합니다. 이 세가지의 성질이 청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상대자에게 베풀더라도 집착이 없이 순수해야지 불순한 생각이 있거나 말 못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주의 형식을 통해서 보시를 가장 한다면 이는 상당한 죄업에 속하게 됩니다. 또 주는 사람은 비록 순수하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목적과는 반대로 불순하게 사용하거나 방탕하게 소비한다면 더 큰 죄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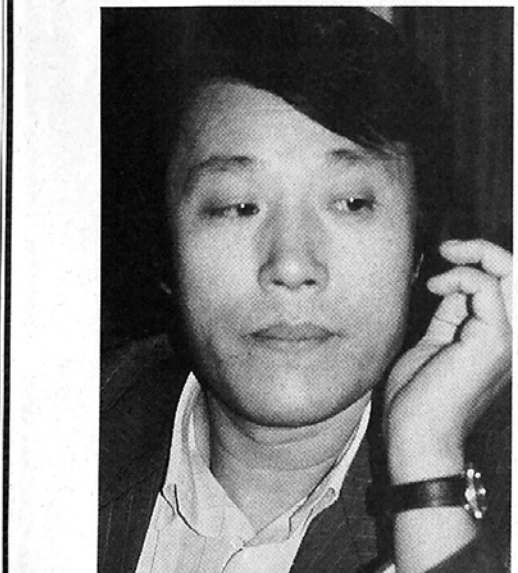
마음은 주고 받는 사람이 어디까지나 순수하다 하더라도 주는 사람이 죄악을 지으면서까지 얻은 물질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을 받는다면 받는 사람에게 크나 큰 악업

수도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활동이 무리해 지어 인생의 근본진리인 진정한 법을 무시하므로 어지러운 잡된 신앙이 많이 생겨납니다. 세계 인류를 위해 하루바삐 정법의 운동이 활성화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정신(報恩精神)을 발휘하여 우선 스스로 해이해진 불심을 일깨워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변에 불법을 안다고 해도 아직 미진한 사람, 또한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법에 뜻을 두지 않으려 하는 이웃들에게까지 성의를 다바쳐 이 정법의 길을 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혼자 갖는 불심을 대중에게 퍼지도록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도(成佛道)하자는 대원(大願)을 이루는 불심 심기 운동을 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창작과비평사의 베스트 셀러



황석영 대하소설
장길산
개정판 / 전 10권

홍세화 지음
나그네들의 택시업자
갈 6,000원

이홍준 지음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2
갈 6,000원



소설 **禪** 1,2
고은

『소설 신』은 중국의 선종사의 일화를 빠른 속도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내면과 끝없는 우주의 공간을 아우르는 정신의 호탕함도 매력적이고, 선의 역사를 관통하는 수많은 기인들의 등장과 해후는 그 자체가 소설적인 사건을 만든다.

— 조선훈보 8월 15일자 갈 6,500원

『장길산』은 해방 후 남한에서 창작된 수많은 역사소설 가운데 단연 우뚝하다. 역시 그 한계까지도 포함해서 『장길산』은 남한 최고의 역사소설이다.
— 최원식(문화평론가·인하대 국문과 교수) 갈 6,500원